**연중 제10주일(2018년 6월 10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사람들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예수님의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이래 저래, 사람들로 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당시는 예수님이 갈릴래아에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초창기에 해당하죠. 예수님이 여기 저기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어렴풋이 소문을 듣고 가족들은 예수님이 혹시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율법 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대적하고 부딪치니까 위험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찾으러 온거죠. 복음서에서는 “붙잡으러 왔다”고 전합니다.

성모님도 함께 찾아 옵니다. 찾아온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쌀쌀 맞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냐?”

사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친척들과의 관계가 활동 초기에는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왜냐면, 가족이나 친척들 조차도, 심지어는 어머니 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그 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위험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하고 말리기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모님과 그외 가족, 친지들은 비로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공동체에서 초대 신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냉대했다거나, 예수님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가족관계, 즉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족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피와 살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새로운 가족관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 영적인 관계가 핏줄로 맺어진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복음서가 집필된 당시에 외부에 박해가 많았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신자들은, 같은 운명을 지닌 운명 공동체로서,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살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 관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새롭게 꽃피게 된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를 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는 대목.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언급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과 누이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핏줄을 나눈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 친척 형제, 혹은 단순히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들 듣고 그분을 붙잡으로 나섰다”는 대목에서는 ‘친척들’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친척들”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라는 의미로 함께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되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교 문화권에서 사촌이나 육촌, 팔촌 형제들도 다 친형제라고 예우하고 불렀던 이스라엘 지방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꼭 친형제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듯이,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럽니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몰아낸다”고. 예수님은 이 말도 안되는 논쟁에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악이 악을 이기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고.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빰을 한대 맞으면 다른 빰도 대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미운 사람을 용서해라. 일 마일을 가 달라고 하면 이 마일을 가줘라.”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한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줘야 됩니다. 당시 통용되는 법은 ‘동태 복수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복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에나 지금에나 통용되는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참뜻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세상은 영원히 악이 반복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고, 증오를 증오로 갚는다면, 세상에 미움과 증오는 끝이 안납니다. 전쟁과 갈등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갚고, 증오를 용서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웬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이 웬수 같은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복수 하는 것이 참된 복수입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고, 증오를 증오로 갚는 다면, 영원히 이 세상에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웬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그래야 하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참된 사랑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참된 행복의 길, 영원한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